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작하는 사람

새해 새 출발을 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한 이가 있습니다. 시작이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뜻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면 꿈과 이상이 있어야 하고 창의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며 거기에 결단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 또 하지 않는 일을 시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과 창조적인 지혜와 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는 용단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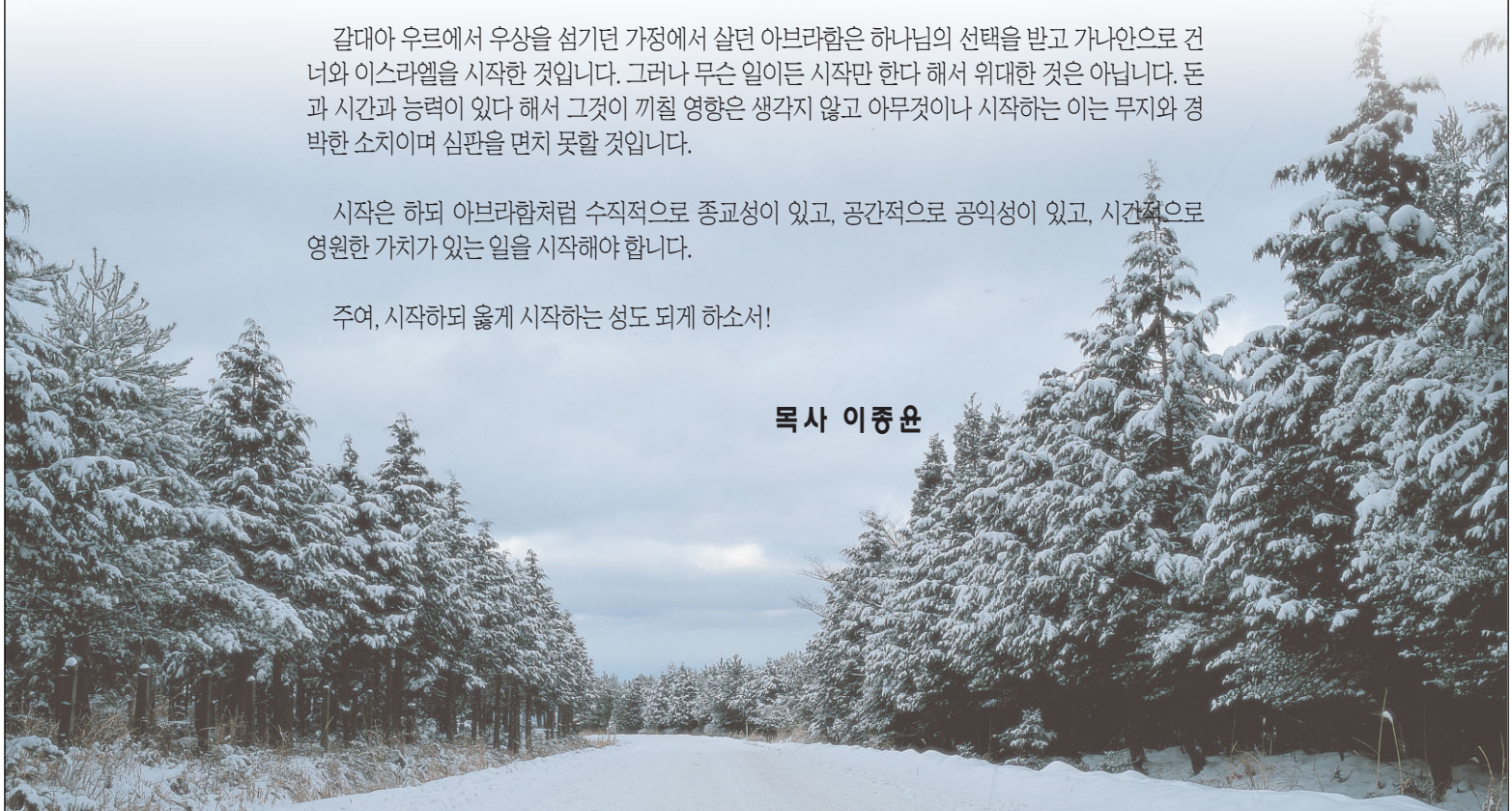
올해는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남의 업적 뒤에 숨어서 힘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안일주의자나 원하는 일이지만 좀처럼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타산주의자나 믿음이 없어 전진을 꺼려하는 회의주의자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창조적 새 일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서 살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가나안으로 건너와 이스라엘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시작만 한다 해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다 해서 그것이 끼칠 영향은 생각지 않고 아무것이나 시작하는 이는 무지와 경박한 소치이며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시작은 하되 아브라함처럼 수직적으로 종교성이 있고, 공간적으로 공익성이 있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여, 시작하되 옳게 시작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목사 이중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사랑의 연탄 · 사랑의 온차(溫茶) 나누기

- 성탄헌금으로 -

우리교회는 지난 25일 성도들이 바친 정성의 성탄감사헌금을 극빈자를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와 전방에서 국토방위를 위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

하기 위하여 한국기독교 군선교 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사랑의 온차 나누기 운동본부'에 각각 2천 만 원씩 총 4천 만 원을 전달하였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고 복음을 가져오신 우리 주님의 탄일에 구제와 전도에 힘을 쓴 서울교회 성도들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교회 결산의 57%를 구제, 선교비 등으로

- 오늘 예 · 결산 공동의회 열린다 -

우리교회 연말 제직회에 보고 된 2007년도 결산보고에 의하면 전체결산의 57%가 교회 외부로 지출된 것으로 밝혀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종윤 목사의 입버릇처럼 교회예산의 60%이상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에 근접한 결산이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평균 15%내지 20%예산을 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주님의 교회는 이를 예산 면에서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서

울교회는 한국교회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서울교회는 모델교회의 모습을 한국교회에 계속 보여주기를 바란다.

오늘 (1월6일) 찬양예배 후 신년도 예 · 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열린다. 서울교회 등록된 세례교인은 누구나 참여해야 한다.

신년감사 예배 · 순결서약식

성찬예식: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순결서약식: 찬양예배 시간에

2008년 신년 첫 주일인 오늘을 우리교회는 '신년감사예배'로 드리고 주일 I, II, III부 예배 시간에 성찬예식을 거행하고 신년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지난 일 년을 돌아보면 은혜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할 수 밖에 없는 모든 성도들은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출발하여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승리하며 은혜 충만한 2008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또한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는 2008년도 순결서약식이 거행된다. 순결서약식에 참여하는 이들은 우리교회

등록교인으로 13세 이상 젊은이들로 오늘의 서약을 통해 결혼 전까지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말씀 안에서 순결하게 관리하여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한다.

오늘 서약을 하는 이들에게는 서약을 기억하도록 후 원자와 부모의 지원으로 반지가 주어진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1995년 첫 주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3년째 계속 거행하고 있다.

2008 청지기 수련회

1월7일(월) - 12일(토) 6일간

2008년 청지기 수련회가 2008년 1월8일(월) - 13일(토)까지 6일간 분당에서 열린다.

청지기 수련회 중 새벽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에 열리며 새벽기도회후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담당교역자들의 인도로 청지기 수련회가 진행되는

데 장로, 권사, 집사 등 중직자와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사, 선교위원, 전도위원,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 순례자, 차량, 식당, 교회직원 등 모든 청지기들이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자세한 수련회 일정은 다음의 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구 분	1/7(월)	1/8(화)	1/9(수)	1/10(목)	1/11(금)	1/12(토)	1/13(주일)
05:00-05:30	특별새벽기도회(강사:교육담당 목사)						청지기 헌신 예배 및 제직 수련회 (찬양예배)
05:35-06:25	중직자의 사명과 자세 한상은 목사	예배위원의 역할과 자세 윤영국 목사	교회학교 교육과 운영 이태훈 목사	전도와 선교를 통한 교회부흥 장석남 목사	교구 일꾼의 역할 정수길 목사	섬김을 통한 교회봉사 서명철 목사	
대 상	장로/권사 /집사	예배위원 찬양대원	교회학교 교사	선교위원회 전도위원회	교구일꾼	목회자신학세미나 /멀티미디어순례 자/차량/식당직원	

제2스데반회 신년기도회

1월 12일(토) - 광림기도원

우리 교회 60세 미만 안수집사들의 모임인 제2스데반회(회장 김규태 집사)가 2008년을 시작하면서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개인을 위해 간절한 기도회를 갖는다. 새 시대의 새로운 부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하는 회개와 기도로 새로운 비전을 받고 결단의 시간을 갖기 위해 부부동반으로 모인다. 당일 오후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며 한상은 목사가 인도한다.

제1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 수료

- 오늘찬양예배 시간에 -

2007년 12월 9일(주)부터 시작된 제1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 수료식이 오늘 오후 찬양예배시간에 열린다. 수료자는 다음 주일(1월 13일)부터 이종윤 위임목사 설교사역을 위해 1,2,3부 예배 시간에 맞추어 팀별로 도고를 시작한다. 도고는 402호(가이오실)에서 진행된다. 수료자는 아래와 같다.

임훈규, 박두호, 강영자, 고후덕, 김명심, 김숙자, 김영옥, 김찬진, 김홍두, 박현영, 신항범, 안분선, 여현진, 오은이, 윤숙희, 이성애, 이순희, 이인선, 이정연, 장낙희, 전하미, 정경자, 정정숙, 조동완, 한명순, 한정원, 홍승자 (이상 27명).

한편 제2기 설교사역도고 세미나가 1월 20일(주)부터 2월 24일(주) 까지, 주일 오후 3:30에 609호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수길 목사가 서며 도고사역의 의의, 도고의 특권과 의무, 도고의 승리의 모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고, 설교사역 도고의 중요성, 도고의 실제 등을 배우게 된다.

전도학교 제 32기생 모집

1월 13일(주) - 3월 30일(주), 오후 1시 30분

제32기 전도학교가 열린다. 32기 전도학교는 1월 13일(주)부터 3월30일(주)까지 계속되며 802호에서 열린다. 전도의 이론과 실제 등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하게 된다.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

고등부, 전도의 장 열기로

고등부는 2008년 1월부터 새롭게 전도의 장을 열고자 한다. 주일은 예배와 전도에 전념하라는 교회의 방침에 발맞추어, 고등부 공과 공부를 마치고 11시 20분 부터 12시 20분까지 약 한시간 동안 고등부 지도 정수길목사님과 모든 교사들이 노방전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물론 동참을 원하는 고등부 학생들도 적극 참여를 권유한다. 노방전도를 통하여 전도뿐 아니라 지도 목사님과 교사 그리고 교사간의 결속도 기대해 본다.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성도여러분,
2008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 당회원 일동 -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라는 서울교회



2008년 1월 1일 송구영신예배

2008년 연간 주요 행사계획

· 송구영신예배	1.1(화) 0시	· 교구 찬양대회	5.16(금)	· 성경암송대회	10.19(주), 10.24(금)
· 신년감사예배	1.6(주) 주일 1, 2, 3부 예배	· 권사, 안수집사 선거	5.18(주)	· 추수감사절 및 교회설립 70주년 감사주일	11.9(주) 중고대청 특별찬양 11.16(주) 감사찬양 11.23(주) 감사예배, 임직식, 선교사파송
· 순결서약식	1.6(주) 찬양예배시	· 16차 KIMCHI신화세미나	5.19(월)-28(수) : 프랑스	· 각 지회 총회	11월 중
· 청지기수련회	1.7(월)-12(토) 오전 5시	· 2008홍해작전	6.6(금)-6.25(수)	· 2009 직분자 임명	12.7(주) - 서리집사, 교구 일꾼 12.14(주), 17(수) - 찬양대원 12.21(주) - 교사
· 겨울성경학교, 수련회	1-2월 중	· 맥추감사절	7.6(주)	· 교구총회	12.7(주)
· 성경통독 사경회	2.7(목)-8(금)	·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7-8월	· 찬양대 총회	12월 중
· 장학금 수여식	2.10(주)	· 농촌전도단 파송	연중	· 교사총회	12.16(화)
· 해사, 간호사관학교 졸업감사예배	2-3월 중	· 8기 단기선교팀파송	8.4(월)-13(수) : 인도	· 성탄축하예배	12.21(주) 성탄축하찬양 12.24(수) 성탄전야행사 12.25(목) 성탄예배
· 제23학기 성경대학	3.3(월)-5.11(월)	· 장학금 수여식	8.10(주)	· 교역자·장로 목회정책 발표	12.5(금)
· 부활절	3.23(주)	· 당회원 수련회	8.15(금)	· 교회학교졸업예배, 권사은퇴 장로은퇴, 안식년, 전도시상, 주간성경공부수로	12.28(주)
· 교사 교육 및 연합 기도회	3.25(화)	· 34학기 목회자세미나	9.1(월)-11.3(월)		
· 육사세례식	4월 중(찬양:호산나)	· 24학기 성경대학	9.1(월)-11.9(주)		
· 33학기 목회자세미나	3.31(월)-6.2(월)	· 2008 바자	9.4(목)-5(금)		
· 화요정오음악회	4월-5월	· 화요정오음악회	10-11월		
· 찬양대원세미나	5.2(금)	· 사명자대회	10.5(주)-11.23(주)		



김영준 장로 / 당회서기

당회서기는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비전과 뜻을 당회원에게 신속히 잘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목회자와 당회원이 더욱 화목하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며 힘쓰겠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 올 한해 서울교회의 비전을 잘 이뤄가도록 섬기겠습니다.



이영기 장로 / 선교위원장

서울 교회 3대 비전중 하나인 '2010년까지 선교사 100명 파송'은 이제 그 시한을 3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동안 파송한 35명에 올해 최소 20명의 선교사를 추가로 파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교지는 악한 영들과 격전을 벌여야 하는 곳인 만큼 선교사를 선발만 해서 현지로 보낼 것이 아니라, 준비된 선교사를 파송케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선교사를 위한 기도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기도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선교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 선교사 이상의 이름을 놓고 365일 기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입니다. 이렇게 중한 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두 말할 나위가 없고요. 찬양대와 기악팀, 중창반 운영에 이르기까지와 함께 드리는 승리의



이완형 장로 / 교육위원장

"위털루전쟁의 승리가 전장에서가 아닌 이튼스쿨 교정에서 이뤄졌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 교회의 부흥은 서울교회의 교회학교에서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전 교인이 학생 또는 교사가 되어 '누구든지 배우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마다 창의적인 운영을 장려하여 학생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세상 중심의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인생관을 갖고 모든 우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성 장로 / 재정위원장

헌당 이후 우리 교회는 교육과 선교, 구제의 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집' 건립을 위한 련이나, 예배당의 공간문제 해소 등은 새해에 들를 가해야 할 일들입니다. 교회 성장과 이종운 비전에 발맞춰서 하나둘씩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임상헌 장로 / 교구위원장

교구의 부흥은 성도들의 최일선 조직인 다락방의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다락방이 활성화되려면 '새 얼굴'들이 소외되지 않고 많이 정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교구위원회는 올해 표어를 "생명인태의 요람, 교구"로 정하고, 부부동반 다락방 참여운동과 금요심 야기도회나 교구찬양대회 등을 통해 같은 교구, 같은 다락방 식구라는 유대감을 고취시키며, 나아가 모든 다락방과 교구가 한 가족 공동체라는 인식을 갖게 하겠습니다.



서울교회 30 터 그 영역이 더 생계가 어려 태안 기름유출 사랑의 연탄 나 소년 가장 돕기 교회 내외부의



박두호 장로 / 찬양위원장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중요한 찬양을 최상으로 드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
 다. 음악적 준비보다 영적준비가 더욱 중요함은
 찬양위원회는 음악감독과 긴밀한 협력아래 8개
 단, 그리고 특별찬양과 화요음악회, 찬양대양성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찬양을 온 성도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대 기동
 축 추진하
 터전 마
 더욱 박차
 목사님의
 을 수 있



왕경래 장로 / 구제위원장

대 목표 가운데 하나인 구제 활동은 올해부
 더욱 넓어질 것입니다.
 은 가정을 위한 정기적인 지원을 비롯해
 과 같은 국가재난상황을 돕기 위한 구제,
 나누기, 개인수술비 지원, 독거노인 및 소년
 이,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탈북자 돕기까지
 다양한 구제에 참여할 것입니다.

오정수 장로 / 기획위원장

서울교회의 주일이 늘 축제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 되
 기 위해서는 교회가 발표한 모든 사업에 대해 기획위원
 회를 중심으로 치밀한 사전 점검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각 부서가 부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고 서로 돕고 협
 력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기획위원
 회의 몫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모든 기획위원은 매
 달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준비할 계획입니다.



성준경 장로 / 예배위원장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예배'를 드리
 기 위함입니다.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이 정돈된 분위
 기 속에 선포됨에 따라, 성도들이 100%의 은혜를 받
 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안내위원, 헌금위원의 본분입
 니다. 봉사자들이나 성도들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이
 해하는 가운데 질서를 지키며 은혜 받고 기쁜 마음으
 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석구석 세밀한 것까지 살피겠
 습니다.



홍성주 장로 / 전도위원장

올해 우리교회는 2000명의 새 생명 전도를 목표로 주일
 전도와 야간전도, 축호전도, 노방전도 활동 등을 강화할 계
 획입니다. 이를 위해선 전도대원의 숫자를 크게 늘려야 하
 는 만큼, 주일 전도학교, 화요 전도폭발훈련, 기도훈련학교
 등을 운영하며, 전도인 양성을 위한 교육에 특별한 힘을 쏟
 겠습니다. 장로님들도 현장에 나가는 전도대원의 파송기도
 를 맡으며 기도로 지원하는 등 사실상 전 성도가 전도대원
 이 되는 그날까지 전도마인드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윤동준 장로 / 관리위원장

교회 헌금이 적절한 곳에 적절히 쓰이도록 하는 일은 관
 리위원회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예배당 건물이나 차량의 관리 및 보수, 교역자 사택의 관
 리까지 교회 재산 전반을 관리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출함
 에 있어 최대한 신중하면서도 낭비가 없이 집행될 때 하나
 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물질을 절
 약하며 바르게 써서 하나님 사업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시

새 날

신동기 권사(12교구)

새 날	더할 수 없는 사랑으로
시간의 경계 속에	마지막 피 한 방울
새 빛으로	휘장이 열리고
순백의 문을 연다	새 날을 선포한다
시간은	오늘도
본래부터 하늘 나라의 것	당신의 빈 무덤
영원에서 영원으로 흐르는	시간의 경계 속에
사랑의 강	맨발로 다가선
	사랑의 강 가
저렇게 흐르고 흘러도	
섬 없이 흐르는 강은	새 날, 새 꿈
당신의 목숨	하늘에 별 되어
당신의 사랑	이천 팔 개의 별을 띄운다
당신의 눈물	

안식년을 맞이하며

성령으로 재 충전하는 안식년이 되도록



신용식 장로 (13교구)

2008년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장로장립을 받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하루하루를 가지 있고 의미 있게 지내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 또 감사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로 안수를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은유한 삶을 살며 항상 화평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항상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가며 다른 사람에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셔서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교회봉사부서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도한 내용들을 기억하며 헌신과 봉사의 사명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동안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더 많은 기도생활, 말씀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며 아버지 품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끼며 성령으로 재충전하는 안식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권사 은퇴식을 마치고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이순례 권사(3교구)

주님을 멀리 떠났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캄캄한 어두움에서 광명으로 인도해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10여 년 전에 권사 후보로 추천을 받고 '나는 부족하오니' 하며 사양하였고 또 그 다음 해에 다시 추천을 거절하며 도망하다시피 외국에 나갔다가 피택권

사들의 교육과 시험이 다 끝난 후에 활기분한 마음으로 돌아온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놓아두시지 아니하시고 교역자님을 통해 1대1로 교육을 받게 하시고 시험을 거쳐 결국 3대 권사로 임명을 받게 하셨습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지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나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은 이 세상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자

세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충성하겠다는 각오로 권사로서의 10년을 보냈습니다. 막상 권사 은퇴를 하면서 되돌아보니 너무나 미약했고 부족하였으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 무엇을 드리었는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얼마나 했는지... 부끄럽게도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목청 높여 찬양으로 이 몸 바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2008 신임 일꾼들에게 듣는다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양준경 집사(제1스데반회장)

부족한 저를 제 1스데반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데반회는 2008년도부터 60세 이상 제1스데반회, 60세 미만 제2스데반회로 분리됩니다. 2개의 스데반회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쌍두마차'가 되어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서울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새롭게 뛰고자 합니다.

그 출발선에 제1스데반회 회장으로 임명을 받고 보니 한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선배 회원들을 겸손으로 섬기며 충성하겠습니다.

제14회 스데반회 정기 총회 예배 때 이종윤 목사님이 하신 '지도자의 네가지 덕목'이란 제목의 말씀

**자기 절제,
인내와 관용,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신뢰의 덕을 쌓기 위해**

이 저와 스데반회 회원들에게 금과옥조가 됩니다. 자기 절제를 할 줄 알며, 인내와 관용으로 사랑을 베풀고, 고난을 기쁨으로 참고, 신뢰의 덕을 쌓기 위해 기도하며 힘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값 주고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하며, 목사님이 당부하신 네 가지 '덕'을 쌓아 나간다면 나머지는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게 채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 새해부터 스데반회는 말씀이 충만한 서울교회 일꾼으로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수요 전도대를 스데반회가 전담하여 더욱 많은 불신자들이 서울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교회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모이는데 힘쓰는 스데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 하는 스데반 회원 모두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규태 집사(제2스데반회장)



주님이 서울교회를 세우신 지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씩 반포동 예배당을 거쳐 이곳 대치동에 새 예배당을 세울 때가 생각납니다.

그 때는 전 교인의 눈물과 기도 속에 한 층 한 층 예배당 건물이 올라가던 때였습니다.

마치 어릴 적 돼지 저금통에 한 닢 두 닢 동전을 넣듯, 곧 있을 기쁨의 순간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완공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성도들은 너나할 것 없이 두 팔을 걷고 공사를 도왔습니다.

밤이면 교구별로 조를 짜서 공사현장을 뜬 눈으로 지켜보고, 뿌연 먼지를 뒤집어쓰며 예배당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새로운 진용을 갖추 출발하는 제2스데반회의 회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터전 위에
새롭게
온 몸을 던져야 할 때**

장으로서, 이제 그 때의 기개와 믿음으로 마음속에 '제2의 성전'을 세우겠다는 비전을 품어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진리의 터전 위에 새롭게 온 몸을 던져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자리에만 연연하여 일하는 안수집사가 아니라, 맡은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충직한 안수집사가 되고자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스데반회 일꾼들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사명이요 책무일 것입니다.

제2스데반회는 이 같은 결의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판단 아래 모일 때마다 기도예배를 힘써 하며 이 한 해를 기도로 무장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같이 서울교회와 온 성도들의 축복이 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제2스데반회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자 합니다.

고후덕 권사(살롬 권사회장)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저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받기만 바라던 저에게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니 하나님 도와

주십시오. 힘들고 지친 몸 부르시어 하나님 뜻 이루는데 미약하나 정결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어 맡겨진 일 힘차게 감당할 새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웃 돌보기를 내 몸 같이 하라시던 주님의 말씀 따라 이제는 나이 많아 연약해진 권사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부족한 저를 그리스도의 관용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옵시고 오직 살롬 권사님들 남은 여생동안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근심걱정 없게 하시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늘 기도에 힘쓰며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걸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살롬 권사님들의 손 발이 되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순결서약식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결혼과 순결



이선호 집사 정운용 집사(14교구)

남녀가 교제하는 중에 깊은 관심과 사랑이 무르익어 가면서 순결을 지키기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과 결혼이 더욱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2006년 새해 첫 주일 서울교회에서 순결서약식에 동참하였습니다.

순결서약은 우리에게 있어 약혼식이고 서로에 대한 사랑의 서약이었습니다. 우리의 순결반지를 커플반지 또는 약혼반지처럼 여겼고, 순결서약서는 결혼생활 내내 서로에게 순결하고자 하는 다짐의 의미로 성경, 찬송과 더불어 더없이 훌륭한 결혼예물이 되었습니다.

순결서약에서 결혼까지 2개월이 채 걸리지도 않고 일상천리로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결혼 13개월 만에 예쁜 아들 '원빈'이를 출산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크게 축복하셔서 우리부부는 늘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신혼가정부를 졸업하면서는 경상도남자답지 않은 자상함과 지나친 애교(?)로 타의 모범이 되어 사랑상(賞)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청년의 때에 순결서약을 할 수 있어 축복이었고, 좀 더 일찍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순결서약은 순결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서 가족과 성도들을 증인 삼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어 유혹의 시기에 접어드는 청소년과, 이성교제와 결혼을 앞둔 청년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더 없는 보화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기혼자에게도 순결의 의미를 되새기고, 어여쁘고 멋진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에 아름다운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경 일천독 대장정 성공리에 마무리

-아직 못 읽은 이들 위해 구정 연휴까지 연장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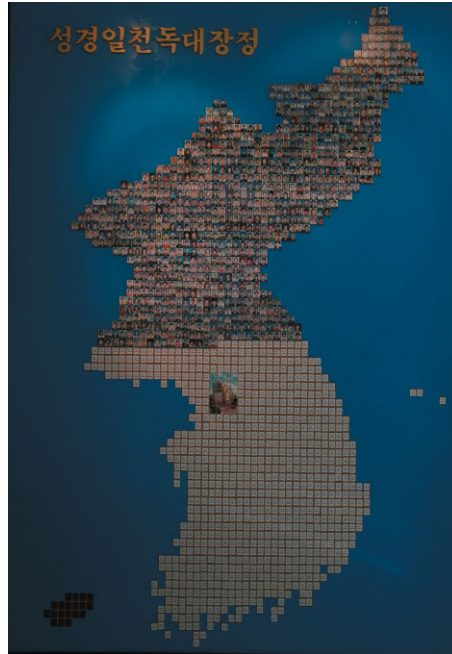
2007년 12월31일 까지 1,024명 완료

1907년 평양대각성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2007년도에 우리교회 성도 1000명 이상 신규약 성경을 1독 이상씩 하는 '성경 일천독 대장정'에 참여한 이들이 지난 12월31일까지 보고된 잠정인원은 1,024명으로 성경 일천독 대장정은 성공리에 마무리했다.

그러나 실제로 연초에 신청자 수는 1,772명으로 아직 못 읽은 이들이 있어 5층 현관에 부착된 대한민국 지도에 사진이 붙지 않은 빈 칸이 많다.

따라서 성경 일천독 대장정 본부(김영준 장로)는 구정연휴가 끝나는 2월10일(주일)까지 읽도록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늦게나마 꼭 지키는 성도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란다.



새찬송가 병행 사용한다

한국 찬송가 공회가 선교 120주년을 맞아 새로 펴낸 찬송가를 우리교회는 새해부터 주보에 현재 부르는 찬송가 옆에 함께 게재하기로 했다.

특별찬양

오늘 저녁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각 찬양대의 지휘자들과 반주자 및 솔로리스트들이 합하여 새해의 좋은 찬양을 다짐 하는 특별한 순서를 갖는다. 소프라노 김경미 선생과 테너 류충기 집사의 이중창에 이어 시온찬양대(수요 저녁예배)의 지휘자로 새로이 임명된 백경화 선생(국립합창단 반주자) 피아노 독주와 그리고 모두가 참여 하는 합창 등으로 꾸며진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2월중 병석에 누워 1년 이상 교회출석을 못하시는 노약자 심방을 한다. 10일(목) 북한구원운동 공동회장 단 모임을 소집한다.
- 오광한 집사(12교구)는 1월1일자로 서울교회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안순 권사는 지난 12월31일자로 사무국 회계직을 사임했다.
- 주간식당 봉사: 제2스데반회(1.6) 제1권사회
- 금주의 식사 : 손병석 집사, 김현정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2008 농어촌 100교회 운동 · 비전2020운동 후원 계속 접수 중 - 사무국으로 -

민족복음화의 일환으로 농어촌 미자립교회를 기도와 물질로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 접수를 사무국에서 계속하고 있다. 농어촌 100교회 지원운동은 본 교단 총회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정책에 따라 농어촌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활비를 보조하는 일을 협력하고 있으며 교회 내의 개인, 가정, 기관, 단체는 약정된 구좌(1구좌: 월10만원, 1/2구좌:월5만원)를 후원함으로써 미자립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어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 동참을 원하는 성도는 오늘 주보에 간지로 삽입된 신청서를 사무국으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전방에서 국도방위를 위해 추위 속에서 수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하며 복음을 전하는 비전2020운동 후원자 접수도 계속하고 있다. 비전2020운동 후원은 1구좌가 5,000원으로 군 복음화를 위한 세례식 및 전도활동, 결연된 세

례군인에 대한우리교회 미래교인으로서 관리활동 등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담긴 후원을 바란다. 비전2020운동 후원 역시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있다.

<농어촌 100교회 운동 후원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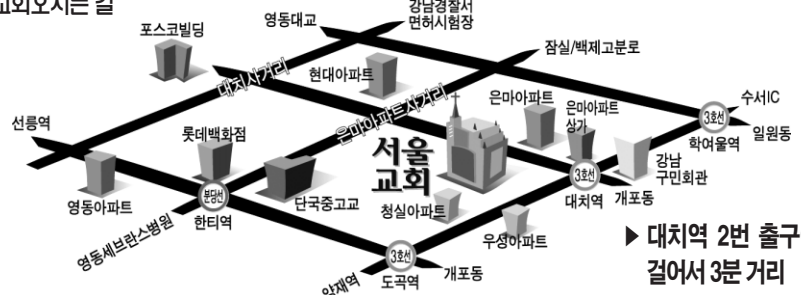
강승웅, 권장철(유종숙), 김광민(환기,유진), 김송배(박남순), 김안희, 김영주(이해순), 김영호(박성금), 김은태(전하미), 김재근, 김재중(김유경), 김정애, 김종재(박진희), 김진희, 노중환, 박정수(김경옥), 박찬성(심명숙), 송인권(윤숙지), 송재현(선순례), 안분선, 원용규(박이선), 원용범, 유혁근, 이강진(송미령), 이관규, 이남성(최영란), 이희민(경실지은), 임광호(김정미), 임상헌, 전수자, 정동학(김복순), 조순엽, 주동재(김동진), 하영수(박정순), 홍성주(여현진), 홍순복, 12교구 2,788연합, 교역자회, 루디아전도회, 새가족부, 제2권사회 (다음 주 계속)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2008 청지기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2008년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소망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3.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를 위하여
4. 새 정부 출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 교회오시는 길



▶ 대치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